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25일(한국시간) FA컵 정상에 오른 뒤 시상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18점 차 뒤집은 보스턴 NBA 동부 결승 3연승

보스턴 셀틱스가 미국프로농구(NBA) 동부 콘퍼런스 결승에서 3연승을 내달렸다.

보스턴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케인브리지 필드하우스에서 열린 2023~24 NBA 플레이오프 동부 콘퍼런스 결승(7전 4승제) 3차전 인디애나 페이스서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14-111로 이겼다. 3연승을 거둔 보스턴은 남은 4~7차전에서 1승만 더 하면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다. 4차전은 28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보스턴이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최근 사례는 2년 전인 2021~22시즌(준우승)이다. 지난 시즌에는 동부 콘퍼런스 결승에서 마이애미 히트에 3승 4패로 분패했다.

보스턴은 이날 3쿼터 한때 66-84로 18점 차를 끌려가며 고전했다. 인디애나의 주전 가드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다리 근육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홈 팬들의 성원을 등에 업은 인디애나에 경기 막판까지 끌려다녔다.



미국 프로농구(NBA) 보스턴 셀틱스의 제이슨 데이텀이 26일(한국시간) 인디애나 페이스서스와의 동부 콘퍼런스 결승 3차전에서 3점포를 터뜨린 뒤 포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역시 주전 센터 크리스티안 포르진기스가 오른쪽 다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진 보스턴은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겼을 때까지 106-111로 5점을 뒤졌다.

그러나 종료 1분12초를 남기고 제이슨 데이텀이 골 밑을 파고들다가 절묘한 비하인드 백패스로 코너에 있던 엘 호퍼에게 노마크 3점 기회를 열어줬다. 호퍼의 3점포로 2점 차로 따라붙은 보스턴은 종료 38초 전에는 즈루 홀리데이가 골밑 득점에 이은 추가 자유투로 112-111, 역전에 성공했다.

인디애나는 이어진 반격에서 앤드루 넬하드의 미들슛이 빛나갔고, 여전히 1점 차에서 다시 공격권을 잡은 종료 3초 전 넬하드가 홀리데이에 공을 뺏기면서 다잡은 경기를 놓쳤다.

스카이데일리 연합뉴스

8년 만의 우승 '환호'... 체면 살린 맨유

FA 결승 맨시티에 2-1 승... '경질설' 텐 하흐 감독 거취 주목

'이게 얼마 만의 우승인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오랜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무려 8년 만이다. '전설' 알렉스 퍼거슨(스코틀랜드) 감독이 이끌던 당시 맨유는 EPL 3연패 2회(1998~99·1999~00·2000~01, 2006~07·2007~08·2008~09년)를 비롯해 FA컵 7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EPL의 최강자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퍼거슨 감독이

27년간 잡아온 지휘봉을 놓고 2012~13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맨유는 침체기에 빠져 있다.

그러는 사이 퍼거슨 감독이 재임 시절 '시끄러운 이웃'이라고 폄하했던 지역 라이벌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는 유럽프로축구 트레블(정규리그·FA컵·챔피언스리그 우승), EPL 최초로 4년 연속(2020~21·2021~22·2022~23·2023~24) 정상을 안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맨유는 이웃 사촌이 잘 나가니 배가 아



플 수 밖에 없었다. 맨유도 호시탐탐 정상을 노리며 사령탑을 술하게 교체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3년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 데이비드 모예스(잉글랜드), 루이스 판할(네덜란드), 조제 무리뉴(포르투갈), 올레 군나르 솔샤르(노르웨이) 감독이 맨유를 거쳐 갔다. 2022년 7월 선임된 에릭 텐 하흐(네덜란드·사진) 감독은 퍼거슨 감독 시절 이후 지난해 리그컵에 이어 처음으로 2년 연속

트로피를 들어 올린 사령탑이 됐다.

맨유가 2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결승에서 맨시티를 2-1로 꺾고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맨시티를 꺾고 2015~16시즌 이후 8년 만에 정상을 올랐다.

지난해 결승에서 맨시티에 1-2로 져 준우승한 아쉬움을 1년 만에 되갚아준 맨유는 대회 통산 13번째 우승 트로피를 쟁취하며 역대 최다 우승팀 아스널(14회)과의 격차를 좁혔다.

퍼거슨 감독 시절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트로피를 들어 올린 텐 하흐 감독은

FA컵 결승전을 앞두고 현지 언론으로부터 'FA컵 결과와 상관없이 경질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던 만큼 앞으로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번 시즌 잉글랜드 EPL에서 8위에 그쳤던 맨유는 FA컵 우승으로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UEL) 출전권을 쟁취 유럽클럽 대항전에 나서게 됐다.

더불어 맨유는 구단 역사상 리그 최다 패배(14패), 최다 실점(84실점), 마이너스 골득실(-1점)을 기록하며 큰 실망감을 안겼지만 FA컵 우승으로 이를 다소 만회할 수 있게 됐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리그 무패 우승 '레버쿠젠'... 獨 컵대회도 석권

2023~24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역대 처음으로 '무패 우승'의 쾌거를 이룬 바이어 레버쿠젠이 31년 만에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더블'(2개 대회 우승)로 시즌을 마쳤다. 1904년 팀 창단 이후 120년 동안 최고의 성적이다. 레버쿠젠은 26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의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2부 소속의 카이저슬라우테른과의 2023~24 DFB 포칼 결승에서 전반 17분 타진 크라니츠카의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 1-0으로 승리했다. 레버쿠젠은 자키의 득점 이후 전반 44분 수비수 오틀롱 코수누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 빠졌음에도 볼 점유율에

서 60.8%~39.2%로 앞서며 1992~93시즌 이후 31년 만에 DFB 포칼 왕좌를 되찾았다. 이로써 레버쿠젠은 정규리그에 이어 DFB 포칼까지 우승하며 더블의 기쁨을 맛봤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리그와 유로파 리그를 포함해 43승 9무 1패의 눈부신 성적표를 남겼다. 유일한 1패는 23

일 2023~24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UEL) 결승에서 아탈란타(이탈리아)에 당한 0-3 패배였다.

레버쿠젠은 전반 17분 페넬티아크 정면 부근에서 시도한 사카의 원발 중거리포가 골대 왼쪽 상단에 꽂혀 승부를 갈랐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시즌 2관왕에 오르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바이어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감독이 26일(한국시간)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